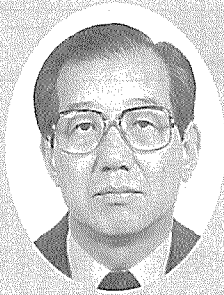


어떤 모습 세가지



함 병 소
〈 석유협회 초대 부회장 〉

대 한석유협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한다고 한다. 우선, 그간 협회를 지키고 협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공헌해온 회원사 여러분과 협회 역대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에게, 한때 협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축의를 표한다. 특히, 이번에 새 사무실을 차리게 된 협회의 앞으로의 꾸준한 일취월장과 부회장 이하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협회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이 떠난 사람이기에 이제 새삼스럽게 협회에 대해서, 혹은 관하여, 무엇인가를 논할 위치에 있지는 않으나, 모처럼 기회가 주어졌기에 아래 몇 마디 사사로운 생각을 곁들인 단상(斷想)을 적어 보겠다.

나는 비교적 일찍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 절대로 잘 치는 골퍼는 아니었지만 한때는 몹시 열중하기도 했다. 지금은 나이 맞도 있고 비용도 너

무 많이 들어서 클럽을 놓다시피 하였지만 아직도 즐기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골프 게임이다. 특히 미국의 직업골프협회, 이른바 PGA가 펼치는 갖가지 시합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US OPEN이나 UK OPEN 등등에서 볼 수 있는 멋진 승부에 도취하면서, 출전 선수들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그 감흥은 골프를 즐기는 이만이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국 PGA 시합의 TV 중계 도중 반드시 방영되는 한 토막이 있는데, PGA에 관한 광고물이 그것이다. 내용인즉, PGA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멤버들(직업 골퍼들)이 이에 솔선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이 PR에 접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 무슨 자기 PR이나 하는 역겨움도 느꼈지만 그 후 자주 보니까 그 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평소에 피땀 흘려 기량을 닦고 경기에 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혈투를 거듭하는 직업 골퍼들의 목적은 분명히 돈벌이 이고, 시합을 기획하고 관장하는 협회의 목적 역시 돈벌이 이지만 그 돈벌이를 위해서 좋은 시합을 마련하여 입장료 수익도 올리고, TV 시청률도 높여서 고액의 TV중계료를 챙기지만, 수익의 일부와 직업골퍼의 여가의 일부를, 골퍼를 칠 수 없고 골프 구경도 못가는 신체장애자나 정신박약자의 괴로움

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이었다.

돈벌이를 하려는 직업골퍼,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협회이지만, 골프를 치고 골프를 보여주고 하는 목적이 돈벌이만이 아니라는 점을 TV를 통하여 애써 알리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한 구석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20여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미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귀로에 캘리포니아 주, 한 고을에 들러서 몇몇 사람과 저녁을 같이 하였다. 장소는 *Petroleum Club*, 별로 멋진 곳은 아니었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서 비즈니스 디너 등 크고 작은 모임에 알맞은 곳이었다.

약속시간 보다 좀 일찍 도착한 나는 안락의자가 여기저기 놓여있는라운지에 들어갔다. 식사시간을 앞둔 시간이었어서 회원 몇 사람들이 바에 둘러서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마침 TV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 씨가 비쳐져 있었는데, 때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외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해명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끝부분만 잠깐 보았으므로 내용을 확실히 몰랐지만, 연설을 처음부터 본 회원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엄청난 논쟁이었다. 닉슨이 거짓말을 한다, 안한다... 실로 주먹이라도 올라갈 듯한 언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먹도 안올렸고, 먹살도 쥐지 않았

고, 몇 분내에 분위기는 가라앉고 다시 화기애애하게 맥주잔을 기울였다.

잠시 후에 나타난 나와 식사를 함께 할 일행은 그들과 아는 사이여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눈다. 같은 석유업에 종사하는 동업자인 그들은 이 클럽 뿐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만난다고 한다.

대강 인사와 소개가 끝난 후 식탁에 둘러앉자 나는 그들이 들어오기 조금 전 목도한 광경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싸울 듯 싸울 듯 하더니 종래는 서로를 껴안을 듯이 굴뚝이라고...

내 이야기를 들은 일행은 껄껄 웃어대면서, 그래서 이 클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해가 상충되니까 회의석상에서는 목이 터져라고 싸우지만, 이라운지에 모여서는 한잔씩 하면서 그야말로 서로 어깨를 껴안고 화합을 부르짖고, 외적과 대치할 때는 합동작전을 펴자고 다짐한다고 한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이 공간은 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건배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도 있고, 사업상 동지이건 적수이건 자유롭게 기탄 없는 토론이나 언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당시 그 클럽에서 목도한 사소한 광경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 후 닉슨 씨가 걸어간 행로를 돌이켜보면서, 새삼, 사람이란, 동업자이건 경쟁자이건, 동지이건 적적이건, 자주 그리고 자유롭게 만나야, 싸움과 친목, 경쟁과 단합, 다수파와 소수파의 갈등과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그래서, 우리의 협회, 동맹, 연맹, 연합, 조합 등등이 이런 상호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해 본다.

1980년대 후반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즈, 락, 디스코 등, 현대 대중음악을 논하는데 거의 반드시 나타나는 용어에 *MIDI*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현대음악 (사실은, 클래식이든 포퓰러이든 상관없다)의 작곡, 편곡, 연주에 신기원 (新紀元)을 연 신서사이저 (*Synthesizer*)라는 전자악기의 효율적인 제어와 악기간의 원활한 상호교신을 위한 일종의 규약 (規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교적 낯설은 용어의 해설은 이 글의 줄기와 빛나가므로 생략하지만, 이 용어가 현대음악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자음악 내지 컴퓨터 음악의 중심에 우뚝 서 있으며, 이 말의 참뜻을 모르고는 현대음악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이 *MIDI* 규약이 있기에 오늘날의 현란한 전자음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누가, 어떻게 이 새 규약을 마련하였나? 전세계, 특히 미국과 일본에 널리 퍼져있는 악기 제조업자들, 즉 신서사이저 메이커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 같은 본래의 악기에 의한 자연음이 아니고, 전기적으로 합성하거나 녹음해서 가공한 소리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리고 모

든 악기가 내는 자연음을 절묘하게 흉내내거나 자연에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이 인공적인 악기는 이론상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괴물과 같은 것이어서, 누구나 제멋대로 자기 이론에 입각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연주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독창성을 존중하는 예술인 음악에 사용하는 것이니 그래도 좋을 법 했지만 사실은 엉망이었다.

A회사의 제품과 B회사의 제품은 그 사용법이나 연결법이 서로 달라서 호환성이나 상호 교신 가능성이 없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세상의 어떤 피아노든 다 칠 수 있고, 이 드럼을 다룰 줄 아는 드러머는 저 드럼도 다룰 줄 안다.

그러나 A사의 신서사이저를 쏠 수 있게 다룰 줄 아는 음악가가 B사의 제품에는 어리둥절한다. 또, 전자악기니까 전선을 가지고 서로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결해서 연주하면 제품 사이에 정보가 교환되지 않아서 악음(樂音) 아닌 소음만 낸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신서사이저 제조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이고 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 MIDI라는 규격을 창출해내고, 이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각자 다른 이론과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합의를 따르면 손해를 보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소의를 버리고 대의를 살렸다. 1984년에

MIDI에 관한 최종합의를 본 이래, 신서사이저 제조 업체와 전자음악 업계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스스로의 이익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조그만 규약을 노력해서 만들었더니, 너와 내가 모두 크나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엉뚱한 MIDI 이야기를 꺼냈다.

인간은 군생하는 동물,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모여살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뜻일 게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 남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독선적인 사람, 등등이 가끔 예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대체적으로 벗이나 이웃을 좋아하고, 남과 함께 어울려서 남의 도움도 받고 남을 도우면서 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철학을 한다, 도를 닦는다, 입산수도를 한다, 하는 「비범한」사람들을 제외한 우리들 대부분의 「평범한」사람들은 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나 도회지에 남아서 가정을 꾸미고 집단을 이루고서는 남의 체취를 맡으며 살아간다.

친목회도 생기고, 동창회도 생기고, 동호회도 생기고, 중친회도 생기고, 누구누구 후원회도 생기고, 무슨 무슨 OB회도 생기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모임이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적게는 조그마한 패거리의 모임에서 크게는 국제적인 기구가 형성된다.

여남은 명의 벗들이 모이는 게가 우리 가까이 있는 한 예가 된다면

NATO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뜻이나 목적이 같거나, 서로 좋아하거나, 이해가 맞거나, 공동방어를 해야 할 공통의 적이 있거나 하면, 우리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 같다. 우리 대한석유편회도 분명히 그런 범주에 속해 있다.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고, 자주 만나는 것이 좋고, 이루려고 하는 공동목적이 있으면 힘을 모으는 것이 좋아서, 서로 비슷한 국내 정유회사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기구가 우리 대한석유편회다.

그런 뜻에서 아주 소중한 기구다. 협회에 몸담았었고, 그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아무쪼록 우리 협회가 각 회원사만이 아니라, 소비자 and 고객 그리고 사회에 무엇인가를 환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원사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휴식과 토론과 친목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모습을 갖추고, 협회 스스로와 협회 회원사의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유형 무형의 무엇인가를 (그것이 어떤 규약이 되었든, 무슨 도구가 되었든) 만들어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대한석유편회가 이런 일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미 값진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다. 다만 모두가 바라는 협회의 여러 모습 중 내가 바라는 한 두 가지를 그려보고 싶어서 위의 「어떤 모습 세가지」를 적어 보았다. ☯